

이해숙 “교육문화회관, 교육공동체 돼야”

도의회 교육위, 교육문화회관 등 직속기관 업무보고... 최인정 “교육연수원, 교사 원격연수 효과 극대화시켜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6일 제350회 임시회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문화회관 등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해 목적에 맞고 활용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이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 “배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으로 녹아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찾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교육공동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해양수련원의 특수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도내 모든 학생에게 유용한 해양 프로그램 구성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전북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교사들의 원격연수 프로그램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창당 6일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에서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깃발을 흔들며 박수를 치고 있다.

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도내 12개 직속기관에 대해 “최근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등 환경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6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 체육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동화농민혁명기념재단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한완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날카로운 질의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청했다.

한완수 위원장(임실)은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환경개선을 통해 예술가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기를 주문했다.

한희경 의원(비례)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하고 싶은 운동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음을 언급하며 도 체육회의 노력과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꾸린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들의 폭로와 관련,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오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및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으로 정해지고,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사무실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차장 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5명 등 총 8명으로 꾸리기로 했으며 전문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된 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것”이라며 “수사단은 대검에 일체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활동기간에 제약이 없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대해 대검에 일일 보고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뒷선으로부터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 받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 받았다는 주장했다.

이후 춘천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안 검사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뉴스1

민평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경진 의원 내정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6일 6·13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경진 의원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에는 정인화 의원을, 대변인에는 최경환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최경환 민평당 창준위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창당대회에서는 조배숙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합쳐 추대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원으로는 윤영일 의원, 김경진 의원, 배준현 부산시장 위원장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에는 정인화 의원, 대변인에는 최경환 의원을, 6.13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경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의원총회에는 민평당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민평당 창준위는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추가 합류, 영인인사 등을 고려해 비워두기로 했다.

한편 창준위는 초선 위원들을 당직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뉴스1

文대통령 “스포츠 통한 교류·소통이 곧 평화”

“한두 달 전까지 北참가 불가능한 상상... 평창올림픽, 새 지평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나흘 전인 5일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최식 축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며 “그 벅찬 성취를 위해 나는 이 자리에서 IOC는 물론이고 일본·중국·아시아 모든 나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됐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며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다. 남북한이 개최식에 공동입장 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IOC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온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정말 멋지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이 열려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 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간다. 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나자”고 제언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평창이 열려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 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간다. 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나자”고 제언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평창이 열려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IOC의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 세계는 곧 강원도의 겨울 속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모두 한걸음 더 평화로 나아간다. 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나자”고 제언했다. /뉴스1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기업)

순위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